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만 아직 피우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20세가 되면 담배를 피워도 상관 없다고 하지만 담배는 권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TV나 라디오에서 광고를 방송 하는 것은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리에서 광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담배 광고를 TV에서 볼수없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이유에서 입니다. 일본도 TV에서는 광고가 방송될수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나 전차 등의 공공 장소에서는 물론 피울 수 없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앞에서 하는 것을.

담배을 피우지 않는 사람도 보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